

삼성전자, LCD 판매량 세계 1위

Display Research, 1-6월 출하량 3485만대 ... 경쟁기업과 격차 확대

삼성전자가 2004년 상반기 TFT-LCD 시장에서 경쟁기업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Display Research에 따르면, 주요 LCD 생산기업들의 1-6월 TFT-LCD 패널 전체 출하량은 삼성전자가 3485만3000대로 LG필립스LCD(2164만5000대)와 AUO(2131만4000대)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도 49억5900만달러로 LG필립스LCD(39억3700만달러)와 AUO(26억8300만달러)를 크게 앞섰다.

10인치 이상 대형 LCD 출하량은 삼성전자 1502만4000대, LG필립스LCD 1284만3000대, AUO 875만8000대였고, 대형제품의 매출은 삼성전자 43억8100만달러, LG필립스LCD 37억9700만달러, AUO 24억3900만달러 순이었다.

월별 실적에서도 삼성전자는 전체 출하량 및 매출, 대형 출하량 및 매출에서 1-6월까지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004년 2/4분기에 대형 LCD 매출이 2003년 2/4분기보다 115%, 중소형제품은 424% 증가했고 노트북PC용은 31%, 모니터용이 103%, TV용은 221% 각각 늘어났다.

LG필립스LCD는 2/4분기 대형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0%, 중소형은 432% 늘어났고 노트북PC용은 22%, 모니터용은 29%, TV용은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4/07/22>